



## 닭전염성질병 및 백신교육 개최

### 야외경험에 의한 실질적인 종합 닭질병 교육

- 대전에서 1박 2일 동안 실시 -

본회는 전염성닭질병의 올바른 지식보급과 지역별, 농장별 적절한 방역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양계질병 및 백신교육을 오는 6월18일 오후부터 2일간 대전소재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에서 개최한다.

양계규모의 대형화, 밀집화에 따라 닭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져 피해가 심화되고, 백신회수가 많아짐에 따라 양계장에서 프로그램에 많은 혼동이 야기되고있어 각종 전염성 닭질병의 정확한 지식보급과 올바른 백신사용방법을 교육하게 된것이다.

이번 닭질병 및 백신교육에는 박사급으로 구성된 닭질병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뉴캐슬, 감보로, 전염성 후두기관염, 마렉, 계두, 코라이자, EDS 등 전염성닭질병과 백신의 제조법, 면역, 지역별 농장별 효과적인 방역프로그램이 제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채란계, 육계를 사육하는 일반양계농장 대표, 사료공장 질병담당자 등 신청을 받아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청마감은 6월13일(목) 까지 이다.

신청요령은 본회 소정의 양계질병 및 백신교육 신청서와 참가비를 본회에 제출하면 되며, 피교육자는 6월18일(화) 오후 1시까지 대전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전화 523-2991~3)에 도착해야

한다. 교육은 19일(수) 오후 5시에 끝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초로 실질적인 야외경험에 의한 종합 닭질병의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각 양계장에서는 효율적인 방역관리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

- 일시 : 85. 6. 18~6.19(1박 2일)
- 장소 : 대전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Tel (대전) 523-2991~3
- 신청 : 85. 6. 13(목)까지 선착순 30명
- 교육비 : 1인당 2만원(숙식비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편집국(전화 752-3571~2)으로 문의바람

### 부정 외래품 닭고기 판매 단속

- 서울세관, 압수 및 취급상인 처벌 -

본회에서 지난 4월초 농수산부와 유관기관에 건의한 「부정외래품 닭고기유통근절」에 대하여(본지 4월호 p177 참조) 서울세관에서 단속실시결과를 통보해왔다.

서울세관은 지난 4월초부터 5월중순까지 남대문지하상가, 반포수입상가, 이태원 등지의 관련상

가에 단속을 실시해 남대문 지하상가에서는 미군 부대 등에서 불법유통된 닭다리 등 17건 309만원 상당품을 적발 압수하고 취급점포주 15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처벌하였으며 반포상가에도 닭다리 등 7건 170만원 상당품을 적발 압수하고 7명을 처벌하였다고 본회에 통보하여 왔다.

본회는 지난 4월초 수입금지품목인 닭고기냉동육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어 외화낭비와 양계산업보호를 위해 농수산부, 서울시 관세청, 치안본부에 단속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부정의래품 닭고기 판매현황을 목격시 서울세관 밀수신고센터(전화 555-0123, 566-0123)로 신고하면 대기중인 단속반을 출동시켜 조치를 취할 뜻도 밝힌 바 있다.

## 제 4차 검정위원회 개최 - 육용계 사양관리지침 결정 -



△ 제 4차 검정위원회 회의 광경

지난 5월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검정위원 전원 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 3차 검정위원회 회의록 요약보고와 업무추진 보고에 이어 6월 1일부터 검정을 실시할 육용계 사양관리지침을 결정했으며, 73년 6월 14일 제정된 닭 경제능력 검정규정 일부를 수정했다. 주된 골자는 산란계 검정기간을 500일에서 72주로, 육용계는 50일~70일간에서 6주~10주간으로 주단위로 검정기로 했다.

검정항목중에서 산란계는 검정종료시 산란율, 육용계에서는 균일도 등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삭제했다.

## 5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난가고시 현실화하기로 -



△ 5월 채란분위원회 회의 광경

5월 15일 오후 3시 본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난가고시 등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날 토의사항으로 난가고시 현실화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즉각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격이 계속 하락되는 시기에 내린다면 대군업자는 견딜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규모 농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워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열띤 의견이 오간 끝에 난가고시를 현실화 하되 시행시기는 고시위원측에 일임하기로 했다.

또한 채란업계가 장기적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나, 생산자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소비자가격도 따라서 내리도록 하여 소비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계속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오경록(천호그룹) 상무는 산란저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 설명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역가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실제 농장에서는 역가가 불안정하고 변화가 심하다.
- 계군의 체중이 균일해야 하고, 그 분포도상에서 밀집될수록 좋다.
- 오일백신 사용시에는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각 회사마다 오일성분이 달라서 많은 주의를 요한다. 또 환절기마다 역가를 체크하고,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생독만으로는 ND 예방이 불가하다. 생독으로 폐사를 면할 수 있으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독도 2회 이상 병용해야 한다.
- ILT는 일단 농장에 보균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올해 초에도 증상이 약화되었을 뿐 ILT가 돌아왔다.
- 호흡기 질병이 산란저하에 영향을 줄 공간이 크다.
- MG가 산란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MS도 영향을 준다.
- AE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아데노 바이러스(Adeno Virus)도 일단 의심해보아야 한다.
- EDS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 이상에서 말한 것 이전에, 백신으로 질병을 막기보다 환경개선으로 질병유발을 막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6월 회의는 오는 13일(목)  
야외에서 개최기로 —

지난 5월 29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5월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지역별 정보교환에서는 육계가격은 장기간 거의 변동없이 880 ~ 900원선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남부지역이 약간 낮은 편이다. 여름 성수기인 삼복을 대비한 입추의 영향으로 병아리가격은 250원~

300원대를 형성하는 높은 가격이다. 체화물량이 없는 편이며 가격이 약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은 소비가 작년에 비해 10% 가량 감소되었으므로 올해 삼복 성수기의 전망은 밝은 편이 못된다고 전망했다.

6월중 양계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백신접종교육을 6월 18일부터 1박2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비는 20,000원, 숙식이 제공된다. 관심있는 양계인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6월중 육계분과회의는 6월 13일 본회에서 집결, 야유회경 회의를 야외에서 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육계업자의 적극적인 호응있기를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로 연락바란다.

## 황인옥 전무 출국

본회 황인옥 전무는 지난 5월 31일 자조금제도(check off system)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방미길에 올랐다.

이번 방미에는 양계부문을 비롯하여 낙농·육우·양돈 등 사양부문과 도축, 가공 유통업계를 둘러본 후 6월 16일 귀국 예정이다.

## 농촌일손돕기 모내기 행사



본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단체에서는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 과천면 하리에서 직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천여평의 모내기 봉사 행사를 가졌다.